

#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결과 주목

### 광주~대구 연결 동서간 철도

### 1700만 영호남 지역민 숙원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광주와 대구를 오가게 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대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의 문턱까지 넘어가면서 이번 21대 임기 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같은 달 21일에야 겨우 통과했다. 당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과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해당 특별법은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용자 등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의원은 “영호남의 수십 년 숙원사업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16개 시·도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광주지역에서는 잇따라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광주·대구시의회의 의원들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소멸 위기·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광주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묘안이다”고 주장했다.



광주·대구시의회의 의원들이 2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들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떤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 숙원 사업이다”며 “국회는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영호

남인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

·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연장 198.8km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 “군 공항 유치 득실 따져보고 타 지역 성공사례 고려해야”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한 토론회

### 정기영 세한대 교수 주제 발표

### “협오시설”로 회피만 해선 안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기관 이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을 확보해 지역 발전 및 젊은층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큼 무안공항으로의 군 공항 이전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기영 세한대 교수는 이날 도의회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왜 국내선은 통합되어야 하고 군공항은 이전되어야 하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협오시설’로 유치를 꺼리던 과거와 달리, 지자체 주민들이 군 공항 유치 득실을 따져보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하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회피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으로 결론을 냈고 수도권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정부가 대폭 지원해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정승균이 협오시설인 교도소 유치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면회객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들어선 4개의 교도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자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법무부 연수원 유치를 건의하고 있

다는 점도 소개했다. 태백·남원시가 교도소 유치로 각각 500명·200명의 고정 공무원이 옮겨와 인구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재소자들을 위한 시설·조리 분야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전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군 공항 이전의 경우 국방비 시설의 유치 및 정부기관 이전으로 공공기관 이전보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군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가족이 주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교육 및 문화 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층 거주 인구가 늘면서 지역 구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 분석이다.

정 교수는 국내선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안공항의 경우 중국·대만·동남아로 이어지는 최단거리 항로에 존재하는 공항인데, 해외 관광 활성화로 동남아권 저비용항공 수요가 있고 국내선 수요가 있는 곳에 국제선 공급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

내선 통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고 광주-무안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도 갖춰져 인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에 걸쭉 경쟁력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도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강화, 항공사의 항로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시대, 다양한 외국인과 공존해야 하는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역의 핵심 자산인 국제공항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억지로 구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신동훈 전남연구원 공간활동연구실장의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사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독감환자 증가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배 증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겨울철 독감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배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홍보하며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1월 중순 현재까지 전남지역 호흡기 환자 255명 중 77명(30.2%)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5%)보다 2.2배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해와 달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유형이 A형(77.3%)뿐만 아니라 B형(22.7%)도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독감 환자 증가 추이와 비례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도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변함없다

### 시, ‘평일 변경’ 정부 방침에도 유지기로...소상공인 보호에 최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새해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과 관련해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를 통해 구정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현재 광주지역 공휴일 의무휴업 대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10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8곳 등 총 18곳이다. 광주시는 대규모점포의 휴업에 민감한 골목상권 소상공인(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2월14일까지 설 맞이 한우고기 최대 35% 할인

전남도가 설을 맞아 한우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2월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관내 축협 하나로마트 및 한우 광역브랜드(녹색한우·지리산순한한우),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한우 1등급 이상 구이용(등심·안심 등)과 정육(양지·불고기·국거리), 선물 세트 등 다양한 품목을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전남도는 한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 2022년 12월

부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고기 연중 할인판매 등 대대적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 지속 추진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등 사육 능가 경영안정 ▲한우 암소 자율감축, 전남 으뜸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고기 수출 등 한우 사육 우수 적정 관리 ▲농식품부에 한우 수급 조절, 농가 경영안정,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중 앙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12월 4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신분공고게재 익일부 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25일  
주식회사 이메일  
목포시 삼진산단로37(연산동)  
청산인 최중근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01월 04일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03월 12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25일  
주식회사 다온케이글로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지식동 1314호  
(오선동, 케이바이 하남지식산업센터)  
청산인 김희준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